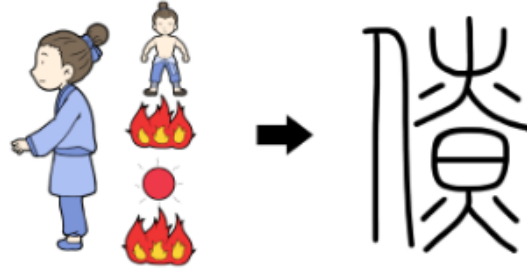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僚

동료 료

僚자는 '동료'나 '관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僚자는 人(사람 인)자와 寮(햇불 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寮자는 불길이 두 번이나 타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햇불'이나 '밝게 빛나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人자를 더한 僚자는 '밝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밝게 빛나는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고대에는 나라의 녹을 먹던 '관료'를 僚라고 했다.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료(同僚)'라는 말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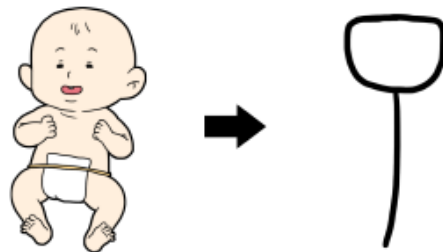
僚

소전

僚

해서

상형문자①



了

마칠 료:

了자는 '마치다'나 '끝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了자의 소전을 보면 상단이 둥근 형태로 𠂆 그려져 있었다. 이는 같은 시기에 그려진 子(아들 자)자와도 𠂆 비슷하다. 왜냐하면, 두 글자 모두 어린아이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子자는 양팔이 그려져 있으나 了자는 팔이 없는 형태로 그려졌다. 양팔이 없는 아이를 그린 것이 왜 '끝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了자는 사실 막 태어난 신생아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了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了자에서 말하는 '마치다'나 '끝나다'라는 것도 이제는 출산의 고통이 끝났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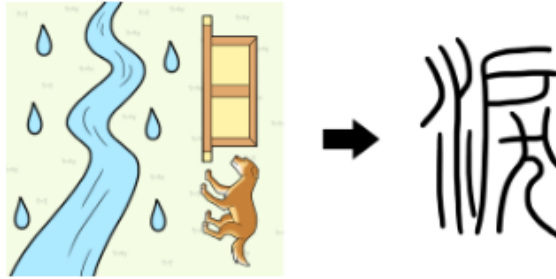
了

소전

了

해서

회의문자①



淚

눈물 루:

淚자는 '눈물'이나 '춥', '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淚자는 水(물 수)자와 戾(어그러질려)가 결합한 모습이다. 戾자는 문안에 개가 갇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淚자는 이렇게 문에 갇힌 개를 그린 戾자에 水자를 결합한 것으로 개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운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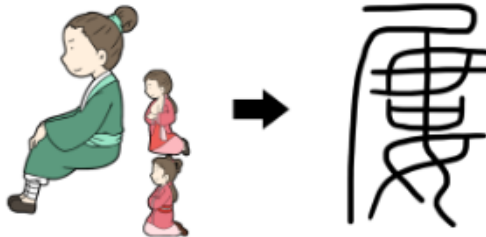
淚

소전

淚

해서

회의문자①



屢

여러 루:

屢자는 '여러'나 '자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屢자는 尸(주검 시)자와 婁(골 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婁자는 '골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첩된 모습으로 응용되어 있다. 屢자는 이렇게 사람이 나란히 겹쳐있는 모습을 그린 婁자에 尸자를 결합한 것으로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數(셀 수)자나 樓(다락 누)자 처럼 한자에서는 婁자가 주로 겹치거나 반복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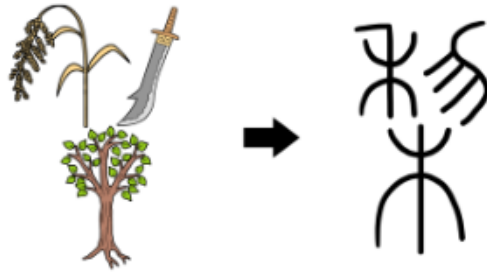
屢

소전

屢

해서

형성문자①



梨

梨자는 '배나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梨자는 木(나무 목)자와 利(이로울 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利자는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수확'이나 '이롭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梨자는 '이로운 나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梨자는 쓰임이 매우 적어 주로 지명이나 상호, 배의 종류를 표기할 때만 쓰이고 있다.

배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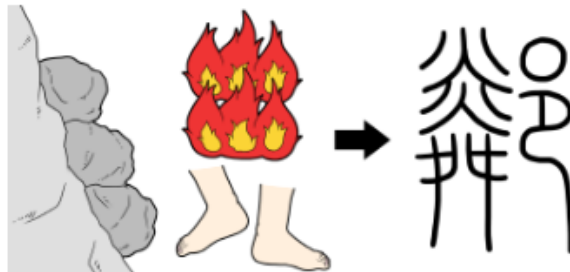
梨

소전

梨

해서

회의문자①



隣

隣자는 '이웃'이나 '인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隣자는 阜(부 : 언덕 부)자와 粦(도깨비불 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粦자는 불 아래로 어긋나 있는 발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발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그린 粦자에 阜자가 더해진 隣자는 이웃 간에 서로 왕래가 잦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隣자는 발이 엇갈려 있는 모습의 粦자를 응용해 서로 간의 왕래가 잦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웃 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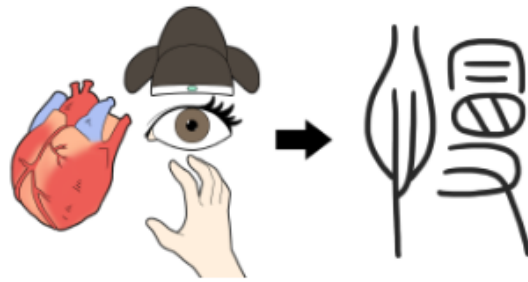
隣

소전

隣

해서

회의문자①



慢

거만할
만:

慢자는 '거만하다'나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慢자는 心(마음 심)자와 曼(끝 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曼자는 손으로 눈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慢자는 이렇게 눈을 치켜뜬 모습을 그린 曼자를 응용해 거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눈을 부라리는 모습을 거만함에 비유한 것이다. 거만한 태도는 게으름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慢자는 '거만하다'뿐만 아니라 '게으르다'라는 뜻까지 파생되어 있다.

慢

소전

慢

해서

회의문자①



漫

흘어질
만:

漫자는 '질펀하다'나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漫자는 水(물 수)자와 曼(끝 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曼자는 모자를 쓴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끌다'라는 뜻이 있다. 漫자는 이렇게 '끌다'라는 뜻을 가진 曼자에 水자를 더한 것으로 진흙이 뒤섞인 물이 자꾸 잡아끈다는 의미에서 '질퍽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물이 질퍽한 상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므로 주로 안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漫

소전

漫

해서

회의문자①



忘

잊을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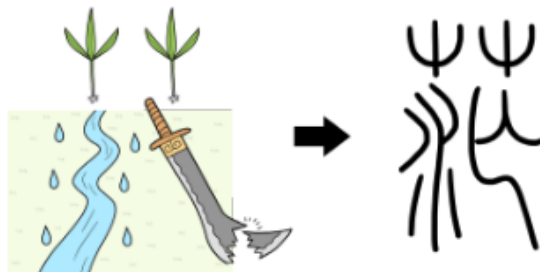
忘자는 '잊다'나 '상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忘자는 亡(망할 망)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亡자는 날이 부러진 칼을 그린 것으로 '망하다'나 '잃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亡자에 心(마음 심)자를 결합한 忘자는 '마음을 없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잊으라는 뜻이다. 忘자를 보니 '미망인'이란 단어가 생각난다. 하지만 미망인은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未忘人(미망인)이 아니라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란 뜻의 未亡人(미망인)이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茫

아득할 망

茫자는 '아득하다'나 '황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茫자는 '아득하다'라고 할 때는 '망'이라 하고 '황홀하다'라고 할 때는 '황'으로 발음한다.茫자는 艸(풀 초)자와 茫(황금할 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茫자에 이미 '아득하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여기에 艸자를 더한茫자는 '드넓은 초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茫자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인 亡(망할 망)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亡자는 부러진 칼을 그린 것이다. 전쟁에 패했다는 뜻이다. 전쟁에 패배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없다'나 '망하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川(내천)자와 艸자가 결합한 荒(거칠 황)자는 풀 한 포기(艸) 물 한 모금(川)조차 없는(亡) 거친 황무지를 뜻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친 황무지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荒자와는 달리 글자 유형이 비슷한茫자는 황무지를 바라보는 막막한 심정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전

해서